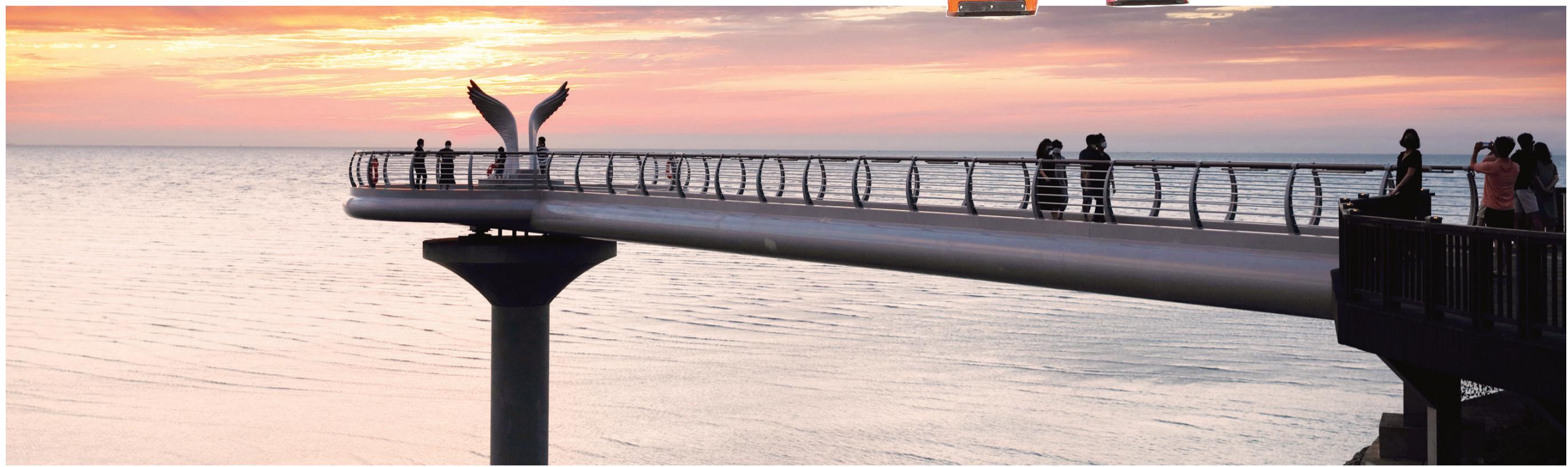


# 스치듯 지나가던 전남



영광 백수 해안도로에 조성된 노을전망대.〈전남도 제공〉

**JEON  
NAM**  
글로컬 여행 성지  
전남으로 - 시즌 II  
(19) 체류형 명품 관광단지 조성

28개 관광지·6개 관광단지 업그레이드  
고급 숙박시설까지 체류형 관광지 확충  
진도·신안·고흥·여수 등 '머무는' 곳으로

광지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관광단지도 늘려 볼거리·즐길거리를 확충한다. 전남도가 지정한 관광단지는 ▲진도대명리조트 ▲해남 오시아노 ▲여수 철린지파크 ▲여수 화양관광단지 ▲경도해양 관광단지 ▲구봉산 관광단지 ▲여수 무슬목 관광단지 등 7곳이다. 전남도는 여기에 ▲고흥 해양예술랜드 ▲신안 자운 관광단지 추가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다.

여수 무슬목 관광단지의 경우 지난달 신규 지정 승인된 관광단지로, 여수시 돌산을 평사리 일대 부지(119만 3000㎡)에 오는 2030년까지 8985억원의 민간 자본으로 호텔·콘도(810실), 골프장(18홀), 연립형 숙박시설(168실), 오션 파노라마 전망대 등을 갖춰 숙박·운동·휴양문화시설이 어우러진 체류형 관광단지로 조성된다.

돌산 일대는 2026 세계섬박람회 개최 예정지로, 인근 오동도·향일암·금오도 등과 연계해 섬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핫스팟이다.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는 지난 9월 승인된 관광단지로, 광양시 황금동 구봉산 일대 부지(207만 2000㎡)에 민간 자본 3700억원을 투입해 조성한다.

오는 2030년까지 숙박시설(220실)과 골프장(27홀), 짚라인, 무동력 모노레일 등 익스트림 레포츠 시설, 경관 조명 산책길 등을 조성해 도심 속 체류형 관광단지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고흥에도 2030년까지 4976억원이 들어가는 콘도(298실)·골프장(27홀)·스포츠파크 등을 갖춘 해양 예술랜드를 관광단지로 지정하는 계획이다.

이렇게되면 여수·광양·고흥을 중심으로 하는 남해안 동부권 관광벨트가 형성되면서 기준 순천 등 관광지와 연계해 전남 해양 관광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즐기고 머물다 갈 체류형 관광지 늘어나=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을 찾은 관광객은 6390만 9000명에 달했다.

전남을 찾는 관광객 밸길은 3877만 6000명(2020년)에서 4239만 6000명(2021년)→5618만 7000명(2022년)→6322만 7000명(2023년)→6390만 9000명(2024년) 등으로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전남도는 관광객들의 밸길을 불들기 위한 전략으로 전남만의 특화 관광상품을 발굴하고 세계적 수준의 관광명소 조성을 통해 체류형 관광기반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현재 28개 지정 관광지와 6개 관광단지를 업그레이드하면서 거점별로 새롭게 조성, 전남을 전 세계인이 찾는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하는 핵심 정책으로 꼽힌다.

지정 관광지로는 올해 영광 백수 해안도로 일대를 '영광 백수 해안 노을' 관광지로 신규 지정·고시하면서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

'영광 백수 해안 노을' 관광지는 전남도가 지난 2010년 합평사포 관광지 지정 이후 15년 만에 새로 지정·고시한 관광지다.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영광 백수해안도로)에 선정될 정도로 유명한 백수 해안도로와 인근에 위치한 노을 전시관을 찾는 관광객이 연간 24만명에 달한다. 여기에 553억원을 들여 관광 기반 시설을 확충해 스쳐가는 여행지가 아닌 '머물다' 가는 체류형 관



광양 와인동굴. 광양에는 최근 구봉산 관광단지가 새롭게 지정돼 체류형 즐길거리가 확충된다.〈광양시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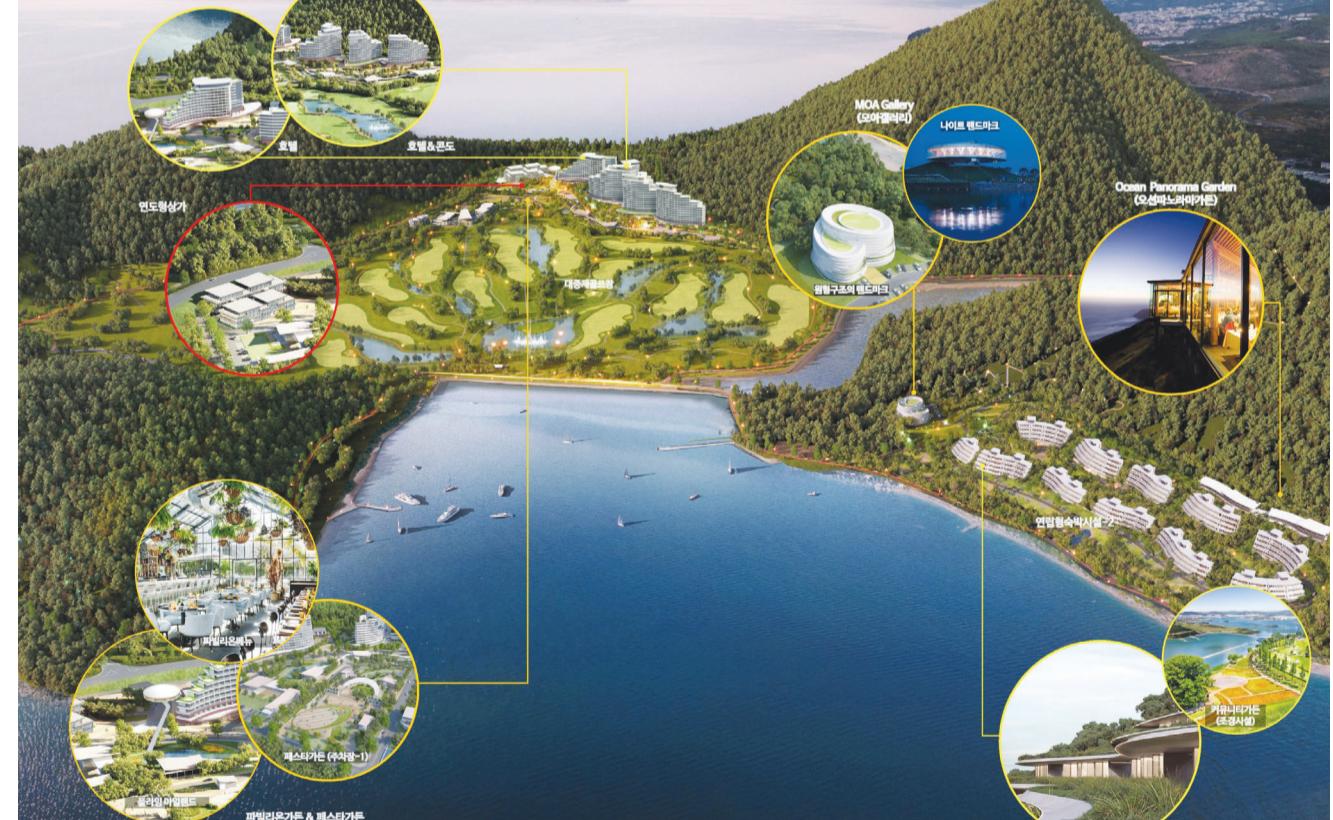


여수 밤바다 전경. 〈여수시 제공〉

**오늘 밤, 머무를 수 있다**



연간 65만 6000명이 찾는 진도 대명 리조트 관광단지는 지난 2016년 관광단지로 지정됐다. 진도를 '머물다' 가는 관광지로 만드는 데 공을 세운 명품 숙박시설로 꼽힌다.



여수 무슬목 관광단지는 돌산을 평사리 일대 부지(119만 3000㎡)에 오는 2030년까지 호텔·콘도(810실), 골프장(18홀), 연립형 숙박시설(168실), 오션 파노라마 전망대 등을 갖춘다. 조감도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는 광양시 황금동 구봉산 일대 부지(207만 2000㎡)에 민간 자본 3700억원을 투입해 조성한다. 조감도